



첨단 삼성 vs 간단 LG
가전혁신
소프트웨어 승부수
03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DAY

“전자기기 모두 집에 두고 가세요”

총 50만4088명 수험생 응시
휴대폰 등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
선택과목 푸는 순서 인지해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화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수험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시스

오늘 50만4088명이 응시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다. 해마다 수능에서는 ‘수능 시험 유의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 교육 당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탐구 선택과목 푸는 순서 등을 인지해 부주의로 인해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다.

◆ 시험장 반입 금지...시험 중 휴대 불가능 물품 확인해야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반입 금지 물품 소지’다. 전원을 껐더라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마트 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의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만일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

험 중 휴대가 불가능한 물품도 있다. ▲ 연습장 ▲개인 샤프(볼펜) ▲예비 표시용 플러스펜 ▲투명 종이 등은 휴대가 적발될 시 압수되며 ▲교과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은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매 교시 타종 엄수해야

수능 시험에서는 매 교시 예비령·준비령·본령·종료령 순으로 타종이 울린다.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 상태 확인과 성명, 수험번호,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등의 행동만 가능하다.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해 문제를 풀다가 적발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각 타종에 맞춰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종료령 역시 유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종료령 후 불필요한 동작으로 부정행위로 오인되는 경우 등 가장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사례도 매년 발생하는 주요 부정행위 유형 중 하나다. 여러 선택과목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골라 풀어야 하므로 실수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예로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돼 0점 처리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밥상 물가’ 안정 위해 집중 점검

농수산물 30개 등 품목별 가격조사

서울시가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말까지 시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30개 농수산물 등에 대한 밀착 점검에 나선다. 60여 명의 시 소속 ‘물가 모니터링팀’이 100여개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품목별 가격을 조사하면 시는 그 결과와 온라인 가격정보 등을 종합해 가격변화 추이를 분석, 물가안정대책 수립에 반영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점검은 정부의 특별물가 안정 정책 추진에 발맞춰 관련 부서가 합동 추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단속, 집중관리대상 추가 건의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경제담당관은 농수산물 가격모

니터링 및 전통시장 가격 현장조사에 임하고, 농수산물유통담당관은 가락농수산물 시장 도매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한다. 식품정책과와 자치구는 각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가격표시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품목은 상추, 시금치, 배 등 농산물 24개와 조개, 굴 등 수산물 6개 등 총 30개다. 서울시는 폭넓은 관리를 위해 정부의 집중관리 품목(35개)과 겹치지 않은 품목들을 선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확대하고 시민 이용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업주의 신청시 자치구가 가격·위생·공공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 학생 문해·수리력 진단검사 받는다

4만5000여명 대상 기초학력 진단 오는 20일~24일 초등 4학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 4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서울시의회 지원을 받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진단 도구이다.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학교 자체 개발 도구 등이 있으며 교과 기반 도구이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

는 기초 소양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검사내용은 일상생활과 학습상황에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교과융합형 문항이나 실제 생활에서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문항 등으로 출제된다.

진단검사는 약 210교의 표집 학교와 희망 학교,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2곳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4개 학년 학생 약 4만5000명이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12월 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보고서에는 ▲문해력·수리력 검사 점수 ▲학생의 수준 ▲문해력·수리력 하위 영역별 도달도 등이 제공된다. /이현진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최고액 190억

서울시, 체납자 1만4172명 공개 전자담배 제조업 김준업씨 2년째 1위

서울시가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새로 오른 체납자 중 세금을 밀린 사람은 개인으로, 체납액은 19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명단에는 기존 공개인원 1만2872명에 신규 공개인원 130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밀린 세금액은 1조6413억원에 이른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이 625억원을, 법인은 369개 업체가 28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원이다. 이들 중 738명은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안 됐지만, 다른 자치단

체의 체납액을 더했을 때 1000만원 이상이어서 신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포함해 세금을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는 40세 김준업씨로 파악됐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담배소비세 등 190억1600만원을 내지 않아 2년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제이유개발로 이 법인을 113억2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완화

인천시의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전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

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2 | 해질 / 17:21

11월 16일 (木) 음력 : 10월 4일

수도권 날씨 6 ~ 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3/8, 동두천 4/8, 가평 1/7, 파주 4/8, 서울 6/8, 양평 3/8, 인천 7/9, 수원 5/9, 용인 5/9, 평택 3/9, 백령도 9/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MLB, ‘바람의 가문’에 관심 이정후·고우석 신분조치 요청 /사진 뉴스시스
▲KBO, 임찬규·양석환 등 FA 명단 공시...19일 협상 시작

▲류현진, ESPN 선정 FA 선발 최하위 등급...이정후는 호평
▲손흥민, 또 무관에 그치나...토티, EPL 우승 확률 0.3%?



▲리버풀 디아스, 콜롬비아 반군에 납치됐던 아버지를 구해
▲NBA 경기 중 난투극...그린·톰프슨·맥대니얼스 퇴장 /사진 뉴스시스